

GIST, 국제정치 전문가 박원곤 교수 초청 제60회 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 국제정치 전문가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초청 10월 27일(월) 오룡관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돈과 힘으로 외교를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
- 트럼프 2기 외교전략과 한반도 정세 분석... 트럼프 시대의 귀환,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등 공유



▲ GIST아카데미가 10월 27일(월) 이화여대 박원곤 초빙교수를 초청해 오룡관에서 10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0월 27일(월) 오룡관에서 **제60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연사로 초청돼 '**다시 돌아온 트럼프: 돈과 힘으로 외교를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원곤 교수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센터 소장,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북한 및 미국 외교정책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함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 등장**에 각국은 비판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각 국가들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기능을 거부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해 불수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과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하려는 성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가 GIST 아카데미 10월 조찬포럼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돈과 힘으로 외교를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편,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5월·6월·9월·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을 위한 조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60회 조찬포럼은 올해 마지막 포럼으로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내년 첫 조찬포럼은 2026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